

민족사의 진실과 대립하는 반역의 역사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

의식 노예화와 민족경제 파괴, 균형발전 진로 봉쇄 '은폐'

동북아아 평화체제 막는 이데올로기...치열한 비판 대상



글_ 김민웅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

이른바 뉴 라이트 인사들이 우리 역사를 새롭게 정리 하겠다고 나섰다. 시대가 바뀌면서 대세를 쥐고 있는 기존의 진보사관이 민중사관에 기초해 있다는 비판이다. 역사는 국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봐야 하는데 민중의 저항사만으로 역사를 읽어나갈 때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국제적 관계”의 구체적 실상은 일제 식민지 역사가 된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이해가, 민중의 저항이나 민족해방과 투쟁만을 중심에 놓게 될 경우 일제 치하에 이루어진 근대적 발전의 면모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의 발전에도 기초가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역사의식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즉,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식민지 시대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시대에 성취된 근대적 변화를 인정하고 그 근대적 변화의 동력을 제대로 평가해서 오늘의 현실을 보자는 것이다.

특히 박정희 체제의 경제적 성취는 바로 이 식민지 근대화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민주화 운동 세력의 구시대 극복과정은 근대적 발전 동력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이는 이른바 선진화론에 맞닿게 되는데,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체제 속에 편입되어

가는 새로운 발전양식이 우리가 선택할 진로라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주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나가기 전에 우선 짚고 넘어갈 바는, 이들이 비판하고자 하는 진보사관은 사회의식에서 대세가 아니며 도리어 여전히 이념적 매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과, 이들 뉴 라이트의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이 우리 내부의 주체적 동기와 역량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교묘하게 포장된 일제 식민지사관의 재구축이자, 이 땅의 민족해방투쟁사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전복시키려는 논리가 된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제 식민지 지배의 현실이 우리 손으로 미처 하지 못했던 구체제를 해체하고 근대적 발전동기를 부여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봉건조선의 전근대적 구조를 근대적 변화로 교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내부의 힘이 아니라 일제의 지배에 의한 결과였으며, 실증적으로 연구해 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시 식민지 조선의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기간시설의 확대도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발전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교육은 물론이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경제력 향상을 위한 기초가 이 시기에 마련되었고, 교통과 통신 그리고 문화발전의 틀이 일제시대를 삭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식민지 체제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근대가 이루어졌지만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철도와 도로, 도시의 형성과 인재의 육성 등은 모두 이후의 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고, 이를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1960년대

와 1970년대의 경제발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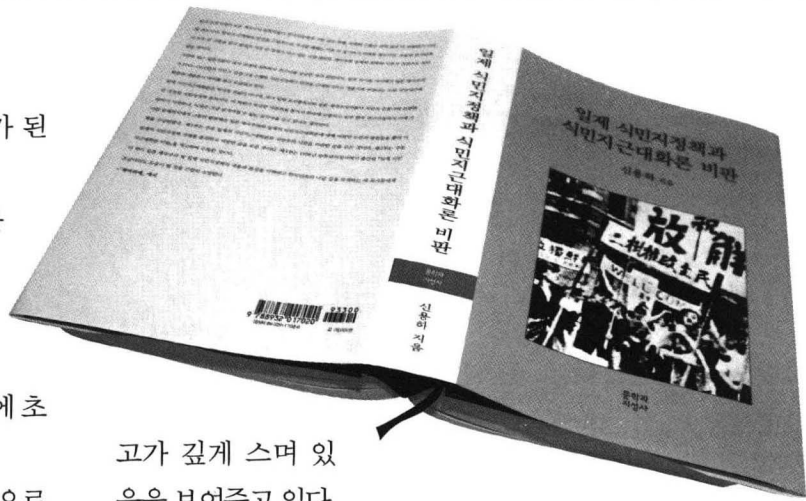
이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물론, 식민지 시대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려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실증적 역사의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자고 강조한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논점은 어디까지나 일제 식민지 시대의 근대적 긍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의 근대성이란, 일본을 종주국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 재편성 과정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써 우리는 일본의 발전을 위해 기존질서가 해체되고 우리의 역량이 동원, 수탈되는 체제로 이행했음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이들은 무참하게 살육 당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농지 소유의 구조가 계급적으로 편중되었으며 저임금 노동이 조선민중에게 부과되는 과정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로써 사상적으로는 자신의 주체적 조건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강자 앞에서 패배주의가 길러지며 식민지 체제를 긍정하게 함으로써 독립적 민족 생존의 의지를 박탈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의식의 노예화와 함께, 민족경제의 파괴와 균형발전의 진로가 봉쇄된 것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식민지 치하에서 주도세력이었던 자들이 여전히 해방공간에서 주도세력의 위치를 뺏기지 않으려고 민중들을 탄압하고 민족의식을 혼미하게 했다. 그에 더하여 새로운 패권국가인 미국의 점령체제 아래 또 다시 종속적 정치경제질서를 구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폐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심각하다. 한미 동맹 내지 한미 FTA에 대한 논란도 우리의 주체적 역량과 결합된 세계적 발전보다는, 강대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생존하겠다는 식민주의적 사



고가 깊게 스며 있음 보여주고 있다.

이들 뉴 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이런 각도에서 일본의 새로운 패권주의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세계 전략적 모순과 그 폐해에 대해서도 입 다물고 있다. 일본은 우리에게 근대성을 가져다준 나라이며, 미국은 이 땅에 선진적 미래를 안겨다 줄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로써 이들에게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눈물이 보이지 않으며, 미국의 침략전쟁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무고한 이라크 민중들 또한 관심사가 아닌 것이다.

민족적 주체성과 인류애적 세계관이 하나로 일체화된 시선으로 자신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회는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고 고통 받는 이들을 외면하며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기 쉽다. 또한 그로 인해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양극화의 모순에 눈을 감고, 이를 발전의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호도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진정한 인간적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가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쓰고자 하는 역사는 그런 점에서, 민족사의 진실과 대립하는 반역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한민**

